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4]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김완일 목사 / 1994

(4) 이해 가능한 어휘 사용

어휘란 간결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해된다는 사실이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학습현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해야 한다. 성경공부에서 전문적인 신학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칭의」나 「성화」와 같은 전통적인 신학 용어와 심지어는 「신앙」과 같은 일상적인 용어까지도 가급적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지나치게 외래어나 원어를 사용함으로써 성경공부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인도자 자신이 아무리 깊이 있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희랍어로는...』이나 『히브리어로는...』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성경공부를 통한 은혜와 친밀감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준비과정에서 전문적인 현장에서는 학습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5) 현실과 관계있는 어휘 사용

성경을 가르치는 인도자는 생활언어를 사용할 때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말 중에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며 무의미한 어휘들이 많다. 인도자는 현대의 언어 자료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도자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용어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어휘력을 늘려주고 참석자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사역에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를 위해 인도자는 참석자의 준비도(readiness)를 알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들의 상황을 마음대로 가정하여 시작해서는 안된다.

현명한 성경공부 인도자는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가르칠 때 구사하는 언어와 중년부부를 상대로 가르칠 때 구사하는 언어를 다르게 선택 한다. 대학 채플에서 사용하는 말과 도심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한 설교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언어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셨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종교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판에 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씨뿌리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공부는 참석자-그들의 문제점, 요구, 문화-를 향하여 선택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참석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빈약한 해석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인도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이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